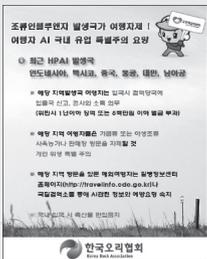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발생, 발생국 여행 자제! 국내유입 차단!

글 : 편집부



최근 중국과 홍콩 등 동남아시아 뿐 아니라 멕시코 등 미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AI가 발생돼 농식품부는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 AI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유입 방지 및 방역 강화를 위해 AI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가금농가 방역 위반사항 적발 위한 중앙기동 점검반 가동 등이 그 내용이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및 예찰,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당 지역 방문이 불가피한 여행자들은 AI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농가나 판매장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위생에 특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지역 방문 전 국립검역소 홈페이지를 통해 AI관련 정보와 예방요령을 충분히 숙지할 것이 좋다.

프랑스 NGO “오리의 정치적 망명 허용하라!”

출처 : 서울신문

이런 이색적인 주장이 최근 프랑스에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망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프랑스의 비정부기구(NGO) L214. 이 단체는 최근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다. 단체가 오리 망명운동을 펴게 된 건 미국 캘리포니아가 오리들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천국이 된 때

문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7월 1일(현지시간)부터 푸아그라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의 간으로 만드는 프랑스의 대표적 요리다.

L214는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살생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프랑스오리들에게 망명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관계자는 “푸아그라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게 캘리포니아가 처음은 아니지만 동물보호에 커다란 진전인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L214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매년 오리 7000만 마리가 살생돼 푸아그라로 변신(?), 식탁에 오른다. 이 가운데 절반은 푸아그라 요리에 적절하지 않다는 암컷 오리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푸아그라 금지 법률은 현지 오리사육협회 등 관련 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며 위헌 논란에 휘말렸다.

◎ 최근 AI 발생 국가

◆ (남아프리카)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 OIE보고 : 2012.6.19.
- 원인체 :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H7N1 TYPE)
- 조치사항 : 검역, 이동통제, 스크리닝, 소독, 변형된 살처분, 백신금지, 치료금지
- 발생현황 : 2건

◆ (홍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 OIE 보고 : 2012.6.21.
- 원인체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H5N1
- 조치사항 : 격리, 이동제한, 검사, 방역대 설정, 감염시설 소독
- 발생현황 : 1건

◆(멕시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 OIE 보고 : 2012.6.26.
 - 원인체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H7N3
 - 조치사항 : 살처분, 격리, 이동제한, 검사, 방역대 설정, 감염시설 소독
 - 발생현황 : 감염 원인과 위험요소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임. 발생지 주변 60개의 가금농장에 대한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를 실시 중임.
- ※ OIE 공지사항 : 6월 21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발표되었던 것을 H7N3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정정함

◆(남아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 OIE 보고 : 2012.6.28.
- 원인체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H5N2
- 조치사항 : 살처분, 격리, 검사, 백신접종 금지
- 발생현황 : 2건

◆(중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 보고 (OIE)

- OIE 보고 : 2012.7.02.
- 원인체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H5N1
- 조치사항 : 살처분, 격리, 이동제한, Screening, Zoning, 발생지역 예방접종
- 발생현황 : 1건

◆(멕시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12.07.03)

- 멕시코 서부에서 지난 6월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뒤 지금까지 최소한 87만 마리의 닭이 죽었음
- 멕시코 농업부는 성명을 통해 서부 할리스코 주

에 있는 2개 지자체에서 H7N3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확인하고 당국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 그러나 죽은 87만 마리 가운데 몇 마리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는지, 또 농가에서 몇 마리를 자발적으로 살처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임
- 멕시코 당국은 지난달 29일까지 할리스코 주에서 150개 양계 농가를 검역하고 그 가운데 10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했음
- 멕시코 정부는 이에 따라 2일 인플루엔자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에 축산동물 보호를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 할리스코 주에서는 국내 닭고기의 11%를 생산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량은 50%에 이룸. 멕시코 국내에서는 연 300만头的 닭고기가 생산되는 데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됨

◆(홍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발생

- OIE보고 : 2012.7.6
- 원인체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H5N1
- 조치사항 : 격리, 이동제한, Screening, 백신비접종, 시설 소독 등
- 발생현황 : 2건

◆(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 OIE 보고 : 2012.7.6
- H5N2가 발견된 이후 3개월간 OIE 육상동물규약에 따라 강도 높은 감시를 실시하였음
- 창화현 소재의 발생농장 주변 전방 3km 이내 닭 농장에 대해 임상적, 역학적 조사를 마쳤으나 NAI 케이스는 관찰되거나 검출되지 않았음(총 137개 농장)
- 따라서 창화현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종결되었음.